논어 14편 헌문 1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臧武仲以防，求爲後於魯，雖曰不要君，吾不信也。」

독음 · 자왈 장무중이방 구위후어로 수왈불요군 오불신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장무중이 방읍을 근거로 후계자의 지위를 요구한 것은 임금을 압박한 일이라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臧 착할 장 장 / 武 굳셀 무 무

仲 버금 중 중 / 以 써 이 이 / 防 둑 방 방 / 求 찾을 구 구

爲 할 위 / 後 뒤 후 후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魯 노둔할 로 로

雖 비록 수 수 / 不 아닐 불 / 要 구할 요 요 / 君 임금 군

吾 자기 오 오 / 信 믿을 신 신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